

## 경성제대 마지막 총장 지낸 화공학자

# ‘야마가 신지’ (山家信次 1887~1954)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경**성제국대학의 마지막 총장을 지낸 사람은 화공학자 야마가 신지(山家信次)였다. 1944년 봄 경성대 총장이 된 그는 일본이 전쟁에 지고, 조선이 해방된 1945년 8월까지 1년 반 정도 이 나라 최고 학부의 책임자였던 셈이다. 그는 특히 일본 해군 중장으로 화약기술 전문가였는데, 평생을 일본 해군 기술 장교로 근무했지만, 또 한 편으로는 동경제국대학을 나온 기술자로 동경제국대학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흔히 ‘경성제대’ 또는 ‘성대’라 부른 ‘경성제국대학’ 이라면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꼭 이 두 학교의 끈이 이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은 해방과 함께 완전히 해체되어 전혀 새로운 모양의 대학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성제대에서 배운 일부 조선인들이 해방 후 서울대를 이끌었고, 또 그 건물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했으니, 어느 의미에서는 계승된 측면도 적지 않다.

### 해군 화약공장장과 동경제대 교수 겸직

경성제대 설립은 1924년 4월로 거슬러 오른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의 뿔어오르는 교육 자치의 열망을 더 이상 억압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 최초의 근대식 고등교육기관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세웠다. 조선인들이 3.1운동 이후 자발적으로 세우려던 대학설립을 막는 대신 일제 스스로 이 정도의 양보를 한 셈이었다. 그 전에 이미 전문학교들이 몇 개 있기는 했지만, 말하자면 ‘초급’ 대학만 있던 이 땅에 처음 대학교를 세운 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경성제국대학을 세운 일제는 여기에 법문학부와 의학부만을 만들고, 이공계 학과는 전혀 만들지 않았다. 법학과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법관과 공무원, 그리고 의사들을 조선인 사이에

서 길러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과학자와 기술자를 조선인 가운데서 적극 길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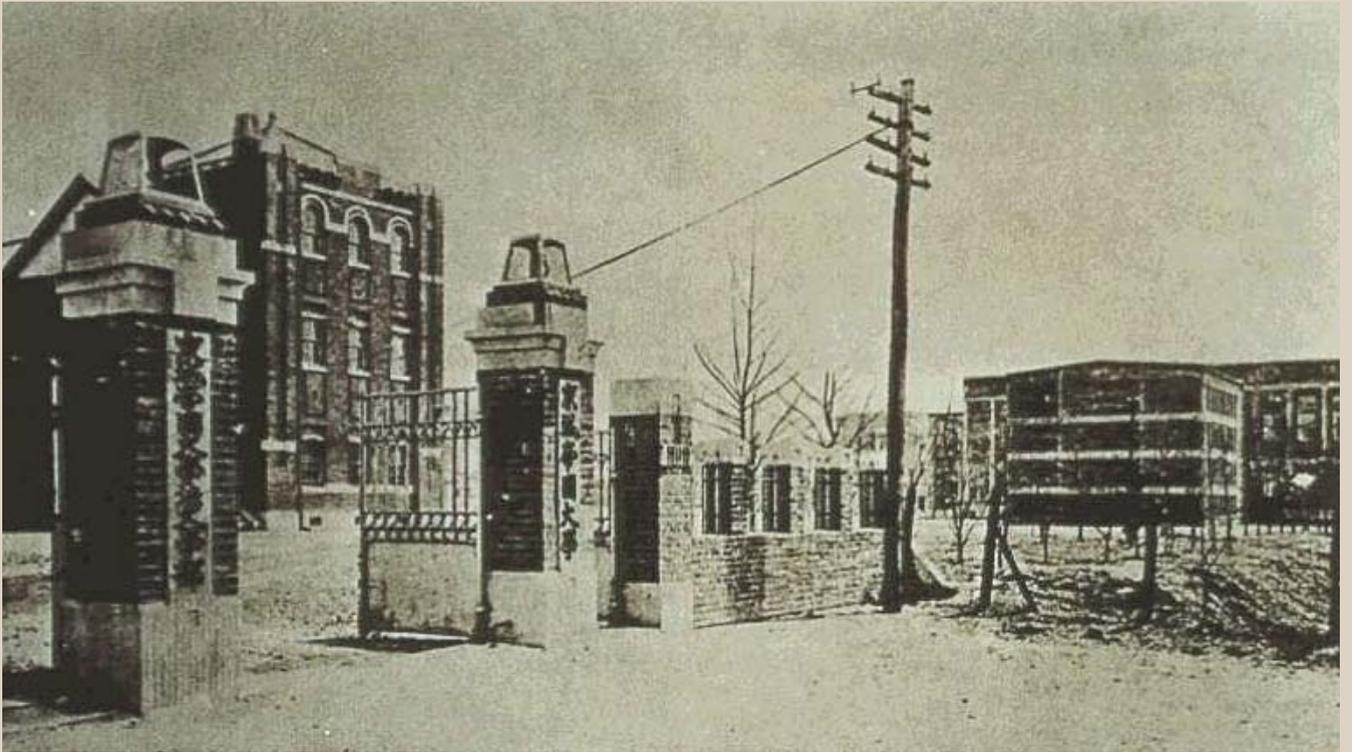
실제로 조선인들 사이에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아직 그리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가 1941년에서야 경성제국대학에는 이공학부가 생겨났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주역을 맡았던 인물이 당시 일본 해군 중장으로 제대하여 동경제대 교수로 있던 야마가 신지였다.

1887년 5월 사카이(堺)시의 기누노초(錦之町)에서 태어난 야마가는 1908년 동경제대 공과대학 화학과에 입학한다. 사카이는 지금 오사카 근처를 가리키며 그의 고향에서는 그를 그 고장 출신의 명사로 기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고향 기록에는 그의 이름을 ‘야마가 신지’가 아니라 ‘야마가 노부지’라 발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차(信次)라는 그의 이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그는 동경제대 3학년 때 해군의 군사 병기 기술 학생으로 선발되었고, 1911년 대학을 졸업하자 바로 그해 여름부터 해군 병기장을 돌아다니며 기술 장교로 근무하게 되었다.

야마가는 1914년부터 얼마 동안 독일과 영국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유럽의 앞선 화약기술을 배워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1919년초 동경제국대학 강사가 되었고, 같은 해 4월 동경제대 공학부의 조교수가 되었으며, 1922년에는 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동안에도 그는 계속 해군 소령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대학과 군대에 동시 복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야마가는 1933년 대령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장군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동경제대 교수는 겸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대학과는 거리를 두고 주로 군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군의 화약공장장으로 일했던 그는 1937년 12월 1일 중장으로

야마가는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를 설치했는데, 물리학·화학·토목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응용화학·채광야금의 7개 학과를 두게 된다. 이것이 한국에 최초로 이공계 대학교육이 제대로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는 한국의 빈약한 근대과학기술 수용의 역사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국내 최초의 본격적 이공계 대학교육이었고, 거기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외국에서 돌아온 과학기술자와 함께 해방 후 이 나라의 남과 북에서 과학기술을 건설해 간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마가는 바로 그런 중요한 대학의 산파 노릇을 한 화학기술자였고, 초대 이공학부장을 거쳐 경성제국대학의 마지막 총장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경성제국대학

진급했고, 20일 뒤에는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제대를 했다.

###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설립 주역

그가 언제부터 서울에 와서 경성제국대학에 근무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상 1941년 1월부터 경성제대 교수로 근무한 것이 드러난다. 이를 볼 때 1937년 12월 21일에 제대한 다음, 1938년과 1939년을 동경대에서 근무하고, 늦어도 1940년에는

서울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1937년 7월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었다. 이미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이 노골화해 갔지만, 이제 전쟁은 국제전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었고, 멀지않아 세계대전으로 퍼질 것이 분명해 보일 시점이었다. 일본으로서는 조선에도 중국진출의 거점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그를 위해서도 경성제국대학의 이공학부를 만들어 그 과학기술적 배경을 튼튼히 할 필

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절대적 요청에서 비롯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성제국대학의 이공학부 설립은 우리 역사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무슨 이유에서건 처음으로 이 땅에 제대로 된 대학 이공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일본이나 서양에 유학하지 않고서는 이공계 대학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조선 식민지 청소년들이 이제는 서울에서 그 공부를 할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물론 경성제국대학은 당시 꼭 '조선인을 위한' 대학은 아니었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주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더 많은 일본인들이 경성제국대학에 다녔다. 게다가 경성제국대학이 서울에 존재했던 1924년부터 1945년까지 21년 동안 교수로 조선인은 단 한 명도 채용된 일이 없다. 하물며 1941년 예과로 시작되어 1943년에 본과가 시작된 이공계에 조선인 교수가 없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다.

이런 뜻에서 일본 해군 장성 출신이며 동경제대 화약과 교수가기도 한 야마가타 이공학부 교수로 와서 일하고, 결국 경성제국대학 마지막 총장까지 맡았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경성제국대학이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인사라고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는 이미 1937년에 동경제국대학에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창설위원회'를 세워 그 계획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그는 서울에 부임하자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를 설치했는데, 물리학·화학·토목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응용화학·채광야금의 7개 학과를 두게 된다. 그리고 그는 초대 이공학부장을 맡았다. 이것이 한국에 최초로 이공계 대학교육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는 1942년까지 교수 27명과 조교수 21명을 충원했으나, 겨우 40명 규모의 신입생을 뽑는 대학으로서는 대단히 많은 교수 요원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공학부에는 7개 학과와 공통과학(교양담당)을 합쳐 39개 강좌를 65명의 전임교수가 맡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의 총수는 320명이었다. 물론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을 함께 선발했는데, 해방 전 졸업한 조선인은 모두 37명이었으니 아주 적은 수에 불과했다. 어느 의미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은 한국의 이공계 교육에 별로 이바지하지 못한 셈이라 하겠다. 너무 늦게 이공계를 만들었고, 거기서 교육받은 조선인이 너무 적었으니 말이다.

이런 제한적인 역사적 의미밖에 없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였지만, 그래도 그것이 한국의 빈약한 근대과학기술 수용의 역사에서

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국내 최초의 본격적 이공계 대학교육이었고, 거기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외국에서 돌아온 과학기술자와 함께 해방 후 이 나라의 남북에서 과학기술을 건설해 간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마가타는 바로 그런 중요한 대학의 산파 노릇을 한 화학기술자였고, 초대 이공학부장을 거쳐 경성제국대학의 마지막 총장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학 연구

그런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야마가타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의 고향에서는 그의 이름을 일본 역사상 중요한 인물로 쳐서 '사카이의 역사인물(堺の歴史人物)'의 한 사람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고향에서도 이렇다할 행사 같은 것은 없는 듯하다. 또 1940년 이후 조선에 와서 근무하면서 그에게서 교육받은 조선 학생들도 여럿 있었을 듯하지만, 한국인 제자들이 기록을 남긴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과 관련됐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서 교육받은 조선인 학생들이 있을 터이지만,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으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은 이 땅을 떠났다. 당연히 경성제국대학의 마지막 총장 야마가타도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조선에 있던 동안 '응용물리', '과학주의공업' 등의 전문지를 통해 몇 편의 논문이나 글을 발표했는데, 모두 전문적인 화약 문제를 다룬 글이었다. 또 1930년에 나온 일본의 근대화에 공헌한 공학박사 520명의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귀국한 일본인들의 모임인 '동화협회'에서 간부(평의원)로 일했으며, 1950년 9월 나라(奈良)시의 덴리(天理)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자들이 모여 처음으로 '조선학회'를 결성하자, 거기에서 31명의 임원 중 하나로 참여하기도 했다. 조선학회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표적 모임으로 '조선학회'를 내면서 활동하고 있다.

야마가타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해인 1954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1986년에서야 그에 관한 기록들이 '산가신차선생유방록'으로 발행되었는데,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제목으로만 보면 추모의 글들을 모은 정도인 것 같고, 경성제국대학의 관계 자료는 별로 없을 듯하다. ㉔